주목! 학술서 김종진의 '근대 불교잡지의 문화사'

불교잡지, 근대 한국불교를 이끌다

근대 최초 불교잡지 '원종'부터
봉선사 강우회지 '홍법우'까지
불교잡지 시대별 조사 · 분석
학술 · 문예 · 사상지로서 역할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근대기 발행됐던 불교잡지들. 사진 왼쪽부터 〈조선불교월보〉〈유심〉〈해동불보〉

근대 최초 불교잡지는 1910년 원종종무원이 발행한 〈원종〉이다. 하지만 〈원종〉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현재 전해지는 최초의 불교잡지는 1912년 발간된 〈조선불교월보〉다. 이는 원종종무원과 조선불교선교양종주지회의 기관지로서 역할을 했다. 실질적으로 올해는 한국 불교잡지 발행 11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학술지가 없던 시대에 불교잡지는 불교학, 불교사, 불교문학 관련 연구의 성과를 담은 학술지로서 유통됐고, 중앙불전 재학생, 졸업생, 강원의 학인, 선원의 젊은 수좌, 그리고 일본 유학생들이 불교적인 심성을 문학적으로 표출하는 문예지로서 확산됐다.

이처럼 근대 시기 발행되는 잡지는 당시 문화와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 텍스트이지만, 유독 한국불교사 연구에서는 관심이 적었다. 있더라도 만해 한용운 스님, 홍사용 등 유명 작가의 작품이 수록된 불교잡지에 한해 연구가 진행됐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종진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발간한 학술서 〈근대 불교잡지의 문화사-불교청년의 성장〉은 잡지 연구를 통한 한국 근대불교 문화사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저자 김종진 교수는 근대 불교잡지 한 권 한 권을 유기체적 텍스트로 파악하고 전개사, 구현된 이념, 학술 성과, 문예 성과를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문화사적 의의를 조명했다. 이를 위해 저자는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발행한 대표적인 불교잡지 17종 300호 이상을 대상으로 구체적 분석을 진행했으며 개별 잡지마다 전개사, 학술사, 문예사로 항목을 구분 · 기술했다. 불교잡지에 수록된 논설, 학술논문, 문학작품 목록을 표로 정리해 독자들의 이해를 도운 점도 이 책의 장점이다.

저자는 근대불교잡지가 이뤄낸 성과로 한국불교사와 근대불교학의 정립, 불교문학의 창작을 꼽는다. 〈조선불교월보〉 초기부터 비문의 현상모집 광고를 앞면에 수록한 것은 이 땅의 불교사를 복원하려는 시도였다. 〈사산비명〉 〈해동고승전〉 〈삼국유사〉 소재 불교사 자료 및 근대 고승 행적을 복원하는 노력들도 불교잡지를 통해 이뤄졌다.

근대 불교잡지는 불교학이 근대학문으로 정립되는 과정에서 공론의 장이었다. 해외 학자 학설을 소개하고 한국 불교학자의 연구 성과를 대중에게 알리는 공적 매체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불교잡지들은 한글을 포교 매개로 사용하며 한글문화 다변화를 기여했으며 소설, 희곡 등이 연재되며 불교문학 대중화도 이끌었다. 사실상 근대 불교잡지는 그 시절 불자와 대중들에게 '복합문화텍스트' 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교잡지에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종진 교수는 "불교 청년의 목소리가 켜켜이 쌓여 있는 불교잡지는 불교 청년들의 성장과 독립을 추동한 매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불교학이나 역사학, 문학 영역에서 익히 인정받는 석학과 문사들만이 근대문화 창조의 주역은 아니다"면서 "급변하는 시기 고군분투했으나 주류로 인정받지 못한, 무명에 가까운 불교청년들의 문화 창조의 성과가 이 연구를 통해 인정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교생이 구현한 감은사지 석탑 신비로움

문화재청, 제1회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경진대회 시상식


제1회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경진대회 학생부 최우수상 수상자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경진대회에서 감은사지 석탑의 신비로움을 디지털로 구현한 고교생들이 학생부문 최고상을 수상했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6월 3일 공주 고마아트센터에서 제1회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경진대회에는 113개 작품이 참여했으며 이중 31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대회는 문화재청이 축적 · 개방하고 있는 디지털문화유산 원천기록 데이터를 국민과 민간기업의 디지털 콘텐츠 소재로 널리 활용되도록 하고, 그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열렸다. 디지털 기획 · 콘텐츠, 문화유산 메타버스 등 2개 분야에 걸쳐 학생부와 일반부 부문으로 나눠 공모했다.

최우수상인 문화재청상은 학생부에 '신비한 감은사지삼층석탑(대구 이룸고 박현난, 이효준, 이준석)' 과 '메타버스 플랫폼 속 문화유산 활용 박물관(서울 우신중 황찬우)' 이 수상했으며, 일반부에 '시각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촉각입체북(넥스페이스 오윤석, 윤상혁, 김정수)' 과 '독립운동 비밀결사 백산상회(전통문화대 이정민, 정재희, 이환욱)' 가 선정됐다.

우수상인 공주대학교총장상은 학생부에 '삼형제 백제 석수 친구들(천안동중 송지호, 천안삼거리초 송지민, 송지율)' , '세계기록유산을 활용한 메타버스' (일신여상 백서현)가, 공주시장상은 일반부에 '세종대왕의 방 VR구현과 영상 다매체 활용방안(덕성여대 성지연)' , '서운관, 조선 기상 및 천문 관측 메타버스(전통문화대 김보람, 변혜빈, 강혜리)' 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은 오는 9월 경주에서 열리는 국제문화재산업전 등 국내 디지털 콘텐츠 관련 전시회와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도 국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디지털 일상화로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 수요가 급변하는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 보급 정책과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고대~근현대 불교사 한눈에 망라

한국학중앙硏, 영문 학술지 6월호서 '불교' 특집

남동신 등 전문 불교사학자
불교 관련 영문 논문 게재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불교사를 망라한 영문학술지가 발간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안병우)은 한국학 분야 대표 영문학술지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6월호를 발간했다.<사진> 이번 호에는 고대부터 고려 · 조선 · 근현대까지 불교 역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연구특집' 이 게재됐다.

'연구특집' 에는 불교사학 전문 학자 4명이 한국불교 변화상과 역사적 의미를 시대별로 살폈다. 남동신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는 'Wonhyo's View of Human Beings and his Redemption of Mankind(원효의 인간관과 중생제도행)' 을 통해 한국 불교계에서 손꼽히는 사상가이자 포교사였던 '원효' 의 인간관과 그의 실천을 살폈다. 원효의 평등한 인간관과 이타적 보살행이 통일신라의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되었음을 살펴 그의 인간관과 중생제도행이 당시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였음을 밝혔다.

김수연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는 'Dhāraṇī, Maṇḍala, and Talisman: The Rediscovery of Buddhist Faith in the Goryeo Dynasty(다라니, 만다라, 부적: 고려 불교 신앙의 재발견)' 를 게재했다. 그는 논문에서 다라니, 만다라, 부적 자료가 그간 한국 불교사의 전통적인 연구 자료로 활용되지 않았으나 고려시대 글을 알지 못하는 대중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중요한 자료며, 그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질 때 비로소 고려 불교 신앙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질 수 있음을 역설했다.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The Spectrum of Studies on the History of Joseon Buddhism and a New Understanding of the Korean Buddhist Tradition(조선시대 불교사 연구의 스펙트럼과 전통 재인식)' 을 통해 그간 학계에서는 조선시대의 불교가 억압 받고 쇠퇴했다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지만, 2000년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불교사 전통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대두됐고, 그 연구 저변도 넓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The Discourse of Reform and the Perception of Tradition in Modern Korean Buddhism(근대 한국불교의 개혁담론과 전통 인식)' 을 발표한 김성연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초빙교수는 일제강점기에 활발히 제기됐던 불교계의 개혁담론을 소개했다. 당시의 이러한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장했고, 한국 불교의 전통 인식과 정체성 확립에는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밝히며 당시 불교계에서 일구고 노력한 산물이 오늘날 한국 불교 전통으로 이어졌음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리뷰특집' 에는 한국의 주요 고고학 유적을 주제로 전문 학자 4명의 리뷰가 게재됐다.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유적과 관련 유물에 대한 다양한 리뷰와 관련 연구 동향을 제시했다.

한편, 국내외 한국학 연구성과 공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1998년 창간된 〈The Review of Korean Studies〉는 연 2회(6월, 12월) 매호 10여 편의 다양한 학술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원효, 어떻게 한국불교 새벽 열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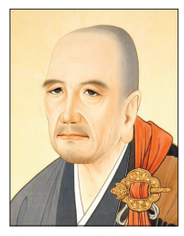
한국불교연구원 7월 13일까지 온라인 강좌

한국불교의 새벽을 열렸던 원효 스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는 온라인 강좌가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이주형, 원장 안성두)은 7월 1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30분 '원효, 어떻게 한국불교의 새벽을 열었는가' 라는 주제로 온라인 강좌를 개최한다. 매주 두 개의 주제를 다루며, 1시간 강연 후 15~20분 정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다.

6월 15일에는 최연식 동국대 교수가 '원효의 대승기신론 선양과 동아시아 불교계' , '화엄사상사 속의 원효' 를 강의하며 6월 22일에는 김태수 대진대 교수가 '동아시아에서 유식-중관 논쟁과 원효의 이해' , '원효의 화쟁사상' 를 다룬다.

6월 29일 이상민 동국대 교수는 '지론교학에 나타난 북조불교의 특징' 과 '원효와 북조불교' 를, 7월 6일 이수미 덕성여대 교수는 '〈대승기신론〉을 통해 본 원효와 법장사상의 차별성' , '원효와 법장의 알라야식 이해, 〈대승기신론내의 략탐기〉에 나타난 원효와 법장사상' 을 각각 강의한다. 7월 13일에는 김성철 금강대 교수의 '진제의 불성론과 원효의 불성사상' , 안성두 서울대 교수의 '진제의 아말라식 개념과 원효의 이해' 가 진행된다.


원효 스님 진영.

한국불교연구원은 "한국불교사에 길이 남은 최고의 사상가이며 민중불교를 이끌었던 원효 스님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동아시아 불교사상사에서 왜 원효스님이 한국불교 새벽을 여는 역할을 했는지 저술을 통해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02)762-5624

신성민 기자

우공침술
개·인·교·습
딱 6일 만에 우공이 개발한 TLS 침법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TLS 침법은 어깨, 허리, 무릎의 통증과 같은 우리 몸의 모든 통증들 및 수많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기발한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신경학, 면역학적인 원리에 의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경락이나 경혈들을 애써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뇌가 통증을 유발시키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 TLS 침법으로 자극하는 테크닉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에 침술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침술을 배우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침술을 너무 어렵게 배우고 있습니다. 별 의미도 없이 지나치게 형식화된 경혈을 죽어라고 익히고, 그곳에 단순히 침을 찌르는 방법을 배우는 게 침술을 제대로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침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발한 침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딱 6일만 시간 내시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발한 TLS 침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방분들은 3일 동안의 속성과정으로도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우공침술의 침술 개인지도는 1:1의 철저한 실습위주로 실시되며, 서울은 물론 지방의 어느 곳에서든지 저에게 오셔서 교습을 받으시거나 또는 제가 방문하여 교습해 드립니다.
NAVER 우공침술 ▼ 검색 하시면
저의 블로그에 접속되며, 그곳에서 침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공침술연구원 문의 및 수강신청 : 010-4054-7110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